

# 자멸을 초래할 어리석은 불장난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경기도 포천의 혼련장에서 그 무슨 《련합합동화력결핵훈련》을 벌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다음달 중순까지 5차례 걸쳐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게 되는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합에 의한 평화회전》이니, 《합도적인 첨단군사능력시연》이니 하고 떠돌고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간장이 최국단에 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국적인 발언 한마디도 엄청난 후과를 몰아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역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전상태의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을 《격멸》하겠다는 전쟁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리는 것은 극히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도발이며 엄연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단독 혹은 타국과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는 하지만 특정국가를 《격멸대상》으로 정적이고 코앞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한두해도 아니고 장강 수심전동안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해오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뿐이다.

지난 온 한해동안 전쟁연습의 화약냄새를 질게 피워온 내외호전세력들이 올해에

들어와서도 역대 최강기의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사상 최대규모의 《쌍룡》련합상륙훈련, 련합해상훈련, 련합공중훈련, 《련합전대중합훈련》, 특수공공강하훈련, 기동 및 실탄사격훈련, 《비상작전훈련》, 《련합공포심투훈련》 등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요리를 물고 벌려놓으면서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을 위한 광란적인 전쟁연습장으로 만들어놓은 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과거 대결시대의 북침전쟁연습들을 되살리고 확대하면서 전쟁대결을 추기해온 것도 모자라 《격멸》과 같은 극히 자국적이고 피비린내나는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으니 그야말로 전쟁과 대결에 미쳐 도 더럽게 미친 호전광, 대결광들이 아닐수 없다.

현 정세는 핵전쟁의 문구에 달한 정도가 아니라 령계점을 넘어섰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버리는 대규모불장난은 북침전쟁의 서곡이고 사실상의 예비전쟁이다. 얼마전 윤석열 역도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제바라 미국, 일본과의 련쇄적인 회담이란 것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공조의 강화 등을 모의한데 이어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공화국을 겨냥

하여 요란한 총포소리를 울리는 것은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실증해 준다.

그 도발적이며 적대적인 총포성이 5차례 련이어 울리며 화약냄새 가득 피워올릴 때 조선반도의 다차전 터질 군사적간장이 얼마나 더 뿜배해지겠는가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

지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화살을 최대로 당긴 상태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핵전쟁의 불기름을 시기각각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가르쳐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격멸》이라는 요란한 수식어까지 동원하며 북침전쟁의 판을 크게 퍼놓았는데 도대체 《격멸》이라는 말뜻이나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용감하다는 것과 무모하다는 것은 뜻이 다른 말이다. 아이들의 불장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지만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대규모불장난을 벌일 때에는 그것이 자기에 미칠 후과, 뒤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격멸》하겠다고 웨치는 상대는 세

계적인 군사강국, 최강의 핵보유국이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군사분계선에서 1km밖에 안되는 곳에 《아파치》직승기와 스텔스전투기 《F-35A》, 땅크, 장갑차, 방사포 등을 갖다놓고 울리는 전쟁음성이 공화국에는 자멸의 무덤으로 줄달음치는 미치광이들의 비명소리, 겁먹은 개가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유하면 창을 피나들고 거대한 바위를 찌르겠다는 현대판 돈끼호테의 괴성일뿐이다.

윤석열역적 패당이 미국상선이 《격멸》을 웨치니까 덩달아 성수가 나서 《격멸》을 부르짖는데 원래 철없는 코흘리개들이 큰형님의 힘을 믿고 우물렁거리기 좋아하는 법이다.

그 《형님》이 그렇게도 세보이는지.

골풍의 눈에는 한없이 세보이겠지만 공화국의 눈에는 한강 《홍이호랑이》로 보일뿐이다.

공화국이 보충만 귀고있을 때에도 원자탄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싸움판에서 얼어맞기만 하고 종당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정전협정》이라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물며 공화국이 최강의 핵무력을 비축한 오늘 조미대결전의 승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공화국을 상대로 찍하면 《합동》이니, 《3각군사동맹》이니, 《다국적무력》이니 하며 이런저런 별 거지들을 다 그러모으는 것도 조미대결에서 수치와 패배의 시궁창에 빠진 약의 제국의 실상을 스스로가 적라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상전을 하나비처럼, 구세주처럼 믿고 그리고 씩어빠진 동아줄같은 미국의 젓어진 《핵수산》에 명줄을 걸고 주재님께도 《격멸훈련》이니 뭐니 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증스럽게 그리었다.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 자위권을 행사하는 초대강국, 초강력을 비축한 핵보유국에 도발의 불을 걸어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윤석열역적패당이 과연 알거나 하고 싶지는는지 모르겠다.

허나 명백한 것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발광하는 승냥이를 두고 사냥총을 내리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적대세력들은 전쟁광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핵강국의 조건경연에 더 가까이, 더 크게 들어서는 것으로 된다 이것을 투바로 알아야 한다.

무모한 《격멸》이 참혹한 자멸로 되지 않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로 광 혁

## 파쇼광의 낮간지러움소리

요즘 윤석열역적패거리들이 《5.18 정신》에 대해 입에 올리고있다.

얼마전에 광주에서 진행된 5.18 광주민병기 기념식에 얼굴을 내민 윤석열역적 패당은 《기념사》라면서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느니, 《5.18정신아래 우리는 하나》라느니 하고 너두리질을 하였다.

윤석열역적 패당이 《5.18정신》에 대해 입에 올린 것이야말로 광주정신과 광주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민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43년전 광주에 울리던 웨침은 《전두환타도》, 《독재철폐》, 《비상계엄 해제》,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역적 패당은 남조선민심의 민주화요구에 역행하여 검찰파쇼독재를 실시하고있다.

윤석열역적 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검찰파쇼들을 올려다헌데 이어 검찰, 경찰, 《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내세워 민주개혁세력들과 이전 《정권》관계자들을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탄압과 정치보복을 벌이고 자기의 비위를 거슬러오는 정치적적수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려는가 하면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까지

《불법》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대국민심리전》을 공모하는 것도 거리낌 없이 감행한 파쇼광도 다름 아닌 윤석열역적 패당이다.

윤석열역적 패당은 추악한 사대매국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짓밟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쳐주는 천하역적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현행이고 가치동맹이며 남조선의 생존과 번영의 담보》라느니, 《(한미동맹)은 세계적인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동맹》이니 하는 얼빠진 퀘벳을 늘어놓으며 미국상선에게 남조선의 경제지리권을 통채로 넘겨바치고있는가 하면 미국이 저들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을 괴멸시킬까지 위해 만든 각종 《경제안보기구》들에 서슴없이 뛰어 들어 상선의 폐권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날뛰고있는 자들이 바로 윤석열역적 패당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지불대상에서 남조선기업들을 제외한다는 것과 남조선기업들이 핵심기술을 넘겨바치야만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듯해 미국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저들의 안방들을 도청해도 《남조선의 변영은 미국의 회색과 흰색에서 서있다》느니, 《악의가 없는 도청》이니 하는 쓸개빠진 너두리를 늘어놓으며 미국상선에게 아부하는 회색의 인간추물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민족의 피와 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사대매국부리인 윤석열역적 패당은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미 국상선과 함께 북침전쟁책동에 광범하면서 민족의 머리에 얽혀있는 불기름까지 몰아오고있으며 심지어 민족의 천년속적인 섬나라 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까지

앞서 이 불기름의 원수들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고 군국주의부활과 제정체를 날개를 달아주고있다.

뒤세기보면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과연 무엇인가.

《우방》도, 《혁명》도, 《보호자》도 아닌 침략자, 강점자, 불행과 재앙의 화근이다. 세인의 처를 떼게 한 광주대참사의 주범도 전두환군사파쇼도당에게 살인무기들을 쥐여주고 《광주군 무죄주석으로 진압》하라고 명령한 미국이다.

일본 역시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죄악을 저지른 범죄국가이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는 간악무도한 날강도무리들이다.

이런 철천지원수들을 극구 찬미하고 아부할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해치고있는 윤석열역적 패당과 그 패당이 《양키는 물러가라!》고 웨치던 5월의 영령들의 정신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변변스럽게 《5.18정신》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광주민병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을 낚아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집권안정을 이루며 나아가서 재건전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적패당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회대의 사대매국노, 극악한 파쇼광, 반공화국전쟁대결광신자, 인민을 등진 반역의 무리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광주의 뉘과 정신을 이어 자주적,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 각계층은 지금 《이때 못 못할때》 윤석열을 심판하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하라!》고 웨치고있다.

본 기자가 전 명 진

남조선의 군부가 윤석열역적 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그 무슨 《북인권참상알리기합동토론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에 대한 《인권》 모략자료들을 각급 부대들에 주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의 《북인권기록센터》와 《국립통일연구원》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토론회에 초청하여 《2023 북인권보고서》의 의미와 내용을, 《북의 사회통제와 주민인권》, 《해외시각으로 본 북인권실상》 등의 주제로 발표내용을 벌려놓았으며 《공보정훈》 장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벌여내며 대결광기를 부렸다.

남조선군 사병들을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의 풀수까지 끌어안고 야수로 길들여 북침전쟁수행의 대모범으로 내몰려는 악랄한 흉심의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북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인민군과 북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장병정신교육교과》를 군부대들에 배포하여 반공화국적대적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월에도 윤석열역적 패당은 《국방부》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대결광발을 마구 쉼쳐대며 군부내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도수를 높이고 피해물 동수였다.

눈섭질의 제약도 가려 못보는 이 인간추물들의 어리석은 반공화국 대결기조에 따라 군부직원들은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북자적론》을 고취하다 못해 오늘에 와서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자료들까지 주입

시켜 극악무도한 대결광들, 호전광들로 만들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정의위협과 비약적으로 성장강화되는 군사적강제로 군부내에 만연된 염연군분위기를 해소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고하고있다.

폭행과 폭언, 폐문패덕 등 온갖 범죄가 란무하고 강권과 전횡,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패한 무리인 남조선군부것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만사람의 조수를 자아내는 회대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오래전부터 남조선군은 광대적변명문화가 만연된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락인되어왔다.

가혹한 기함과 폭행, 성범죄 등으로 자살과 탈영은 물론 총기관사 사건까지 그칠 줄 모르고 궁기퍼현상이 우심하여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까지도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고 개탄하면서 남조선군부것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것들이 당치고 당고 《북인권》을 떠벌이는 것은 군부내에 만연하는 참혹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용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윤석열역적 패당이 《외교부》와 《통일부》, 인간쓰레기들도 모자라 전쟁열에 들뜬 군부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내몰면서 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반공화국대결에 미처도 더럽게 미치고 모략과 기만에 이끌어난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여실히 드러낼뿐이다. 이 더럽고 사악한 무리들, 시정잡배들에게 민심과 여론이 침을 뱉고 단죄배격하고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권 순 남

## 말 말 말)

##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윤석열(대통령)에게는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을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일본내각의 야스쿠니진자참배같은 제국주의적준동을 저지할 의

무만 있다.》 (일본수상의 남조선행차과정에 드러난 윤석열역적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여 《한겨레》작가가 올

린 글중에서)

— 《윤석열더불어 남조선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총대를 메고 방사능오염물질방류, 일본군성노예문제, 독도침략문제를 눈감아주는 일만 남았다.》 (남조선 각계층이 인터넷에 올린 글중에서)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땀을 흘리는 것을 동상이몽한다고 한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적 패당이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앞으로 어디다 쓸지 고민거리라고 한다.

서로가 뭘 꿈꾸고있는지 그 단편을 보기로 하자.

... 《여보, 당신 열성 좀 작 작 부려요. 그 (대통령) 인지 (윤석열)와 일치한 것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느라 수고한 것이 고작 (통일부) 장관인데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지랄인가 말이예요?》

너런네의 저런 지칭구는 벌써 몇달째이다.

밤늦게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와 술 한잔으로 쉴 서대는 육체와 정신을 달래려면 매일이다싶이 이런 탁달지이다.

누가 그랬건지, 밤은 서정의 시간이라고.

서정은 무슨 말파진. 서정은 교사하고 너런네의 양탈질을 기본 잡치고 술맛 잡친다.

(머리칼이 긴 반면에 생각이 짧은 것이 너자라는 물건

이했다. 남편생각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너런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에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전 《국민의 힘》 대표 조진수와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것도,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골격과 《정체》를 주관한 것도 이 권영세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를 도가 집 강이치로나 여기고 기껏 던져주었다는 빠더기가 누구냐 꺼려하는 《통일부》 장관자리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각종 외교행사나 국제회의, 기자회견, 강연회 등에 처음 날 풍금 싸다니듯 돌아치는 《한미동맹강화》이니, 《북인권실상》이니, 《신통일미평구상》이니 하고 허바닥에 떨어 날 정도로 고아했고 자기의 《담대한 구상》을 류포하고 《탈북자》 것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멀어주며 잔치집의 행주처럼

곳은일, 마른일 다 하고있지만 수고했다는 말도 아까와한다.

이렇게 살수는 없다. 권력은 이 권영세가 타고앉아야 한다. 못할 것도 없다. 윤석열에 비하면 내가 한참 낫지 않는다.

4선 《국회》의원에 장관경력이 있지 않는다. 여기에 《국무총리》 경력까지 껴치면 더 좋지. 5선 《국회》의원도 그 한방편이다.

만 필

음, 아직 시간은 있으니 좀더 방법을 생각해보자. 꿈이 달콤하니 손술도 같이 여겨진다.

... 한편 《통와대》에서는 윤석열역적 패당과 《국민의 힘》 대표 김기현과의 밀담이... 《그래, 권영세가 정말 다듬기 (대권) 가지 넘본단 말이지. 그게 확실해?》 《물론입지요. 그렇지 않 고서야 이 당대표를 칠지 난 뻔이처럼 여기며 우리 당안

### 《일심동체》?

윤석열이 기자와 회견하고있었다. 기자: 《(조용한 내조)를 한다던 부인의 공개활동이 많아지고있다.》

### 《어느 나라 사람인가?》

TV에서 《통산주인》이 나오자 조 동하생이 선생에게 물었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아닌지?》

### 《용산유모아》

윤석열이 기자와 회견하고있었다. 기자: 《(조용한 내조)를 한다던 부인의 공개활동이 많아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보니 처가 아니라 (김건희실)이라고 하던데?》

윤석열: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소. (김건희실)이면 될 것이요 영애만 하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해보니 처가 아니라 (김건희실)이라고 하던데?》

윤석열: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소. (김건희실)이면 될 것이요 영애만 하지 않나요.》

어서 자기 심복들을 내세우고있었습니다. 4월에 《국가안보실》 실장 김성환을 (자진사퇴)시킨 일이 생각나십니까? 《대통령》의 외교과외교사이고 제일심복이 라던 김성환이 제거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 앞날도 다름없다고 양망불라했다던지...》

《그가 성한이가 모든 것을 미국의 의중대로 헤아린다는 나의 의도를 따르지

었고 술한 품을 들었는 데 그따위것을 해, 게다가 《담대한 구상》을 각색하라 했더니 제 낮내기를 하려다? 허나새나 장관자리에까지 앉혀주었더니 어떻게 이따위짓!

아니다. 설마 권영세가? 하긴 설마가 사람잡는 것이. 그자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영 많은 것이 어떤지

자고로 아는자가 먼저 배신하는 법이 없다. 제 잔도 들어는 안되는 이 정치판에서 믿음은 이따위 모 놀수 없다. 더우기 《대통령》 감투를 벗으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일어나는 판에 배의 배신자가 더 무서운 법이다.

《유신》형님도 그토록 믿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부정부패행위를 공개하는 바람에 툭툭 망신을 했고 그뒤로 임명된 김재규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하지 않았던가.

그해, 권영세가 나의 발뒤축이 아니라 목줄을 물 어틀지 않느냐고 장담할 수

었다. 도마뱀도 살기 위해 제 꼬리를 잘라버리는 데 권영세 하나쯤 또 잘라버린다고 아까울 것이 무엇인가.

헌데 어떻게? 그렇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때 그자의 일가족의 주권장사행위를 뭐 어쩌구 저쩌구 했지. 그래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 《경찰공화국》이라는 것을 못 쓰게 만들지 못하는 법이다. 또 같이치우자. 권력을 위해선 너런네라도 같이치우야 한다고 《유신》형님도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어느새 《통와대》에는 음험한 기운이 서리고 먹구름이 내려앉았다.

... 권력을 위해서는 심복도 쓴 오이꼭지 버러듯하고 섬기던 상선도 속옷 갈아입듯 내생게치는 것이 남조선정치판이다.

권력을 위해 서로가 땀을 흘리는 것은 정치간사배들만은 남조선에서는 수천만의 인성이 얽속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일 혁